MB정부 5년에 호남은 '빚더미'

가계부채 증가율 52.9% … 전국 최고 기록

이낙연 의원, 韓銀자료 분석

전국평균 39.1% 크게 웃돌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호남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중 주택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크게 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 등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민주당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지역 가계부채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말 29조3000억원에서 올해 5월 현재 44조8000억원으로, 15조5000억원이 늘었다.

최근 5년여 사이 무려 52.9%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39.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권역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충청권이 50.7%, 영남권 43.9%, 수도권 35.6%, 강원·제주권 26.3%였다.

더구나 이 기간동안 호남권 가계부채는 예금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져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말에 비해 호남의 은행권 가계부채는 28.7%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무려 83.7%가 늘어났다.

비은행권 부채 증가율의 전국 평균은 75.7%였으며,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81.6%, 수도권 74.7%, 충청권 70.3%, 강원·제주권 50% 순이었다.

이 의원은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호남지역민들의 이자부담의 심각성을 짐작케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전국 권역별 가계부채 현황 (단위:조)

지역	종류	2007.12	2013.5	증가분	증가율(%)
전국	가계부채	474.1	659.9	185.8	39.2
	(주택대출)	292.8	403.1	110.3	37.7
호남권	가계부채	29.3	44.8	15.5	52.9
	(주택대출)	12.3	24.1	11.8	95.9
영남권	가계부채	90.4	130.1	39.7	43.9
	(주택대출)	52	78.4	26.4	50.8
수도권	가계부채	304.3	412.7	108.4	35.6
	(주택대출)	205.5	264.6	59.1	28.8
충청권	가계부채	36.5	55	18.5	50.7
	(주택대출)	17.9	29	11.1	62.0
강원,제주	가계부채	13.7	17.3	3.6	26.3
	(주택대출)	5.2	7	1.8	34.6

■ 최근 5년간 1인당 가계부채 현황 (단위:만원)

지역	종류	2007.12	2013.5	증가분	증가율(%)
전국	1인당 가계부채	962.3	1,375.00	412.7	42.9
	(주택대출)	594.3	839.9	245.6	41.3
호남권	1인당 가계부채	563.1	902.3	339.2	60.2
	(주택대출)	235.4	485.6	250.2	106.3
영남권	1인당 가계부채	691.9	1,033.40	341.5	49.4
	(주택대출)	397.9	622.4	224.5	56.4
수도권	1인당 가계부채	1,269.80	1,759.10	489.3	38.5
	(주택대출)	857.6	1,127.90	270.3	31.5
충청권	1인당 가계부채	733.1	1,103.90	370.8	50.6
	(주택대출)	360.1	581.5	221.4	61.5
강원,제주	1인당 가계부채	661.9	866.9	205.0	31.0
	(주택대출)	250.5	353.5	103.0	41.1

〈자료 : 민주당 이낙연의원실〉

호남권 1인당 가계부채 또한, 지난 2007년 말 563만1000원에서 올해 5월 현재 902만3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2%의 증가율을 보였다.

1인당 가계부채 증가율 전국 평균인 42.9%를 크게 웃돌았으며, 충청권(50.6%), 영남권(49.4%), 수도권(38.5%), 강원·제주권(31%)에 비해서도 높았다.

호남권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로 인한 부채 비중은 54%에 달했다. 2007년 말 12조3000억원이었던 주택대출은 올해 5월 말 24조1000억원으로, 무려 9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감안하면 호남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율 배경에는 주택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37.7%였으며, 충청권은 62%, 영남권 50.8%, 강원·제주 34.6%, 수도권 28.8% 순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재개발+재건축' 年 1만세대 짓는다

■ 광주시 내년 주택공급 계획

세계수영선수권 선수촌아파트 3500세대
북구 연제동 1500세대·두암동 550세대
동구 화순군 인접지역 600세대
자연 증가 3000세대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 110%로 확대

전세난 해소를 위해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을 110%까지 확대〈광주일보 13일자 1면〉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광주시는 18일 "신축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중심으로 매년 최대 1만 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 2012년 말 기준 102.5%인 광주의 주택보급률을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10%로 확대하기로 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57개소 사업 추진을 통해 6만여 세대의 신규 공급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개발이 완료된 택지의 잔여부지와 개발중인 택지, 광주 시가지 곳곳에 방치돼 있는 주거지역 개선 등을 통해 9000여 세대를 신축하고,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미이용 주거지역(2·3종 일반주거지역)도 개발해 신규로 1만 세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녹지지역의 개발이나 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통한 아파트 공급도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광주 자체적으로 매년 3000세대의 신규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보급률 110%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내년에 연제동(1500세대), 동구 화순 인접지역(600세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3500세대), 자연 증가(3000세대), 북구 두암동(550세대) 등 9000여 세대의 주택 건축 허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북한 청소년들 참가 명단 통보…YLP는?

〈유스리더십프로그램〉

UN-U대회 조직위 주관, 22일~9월 3일 호남대서 열려

분쟁지역·개도국 청소년 스포츠 개발·평화 전문가 양성

북한 청소년의 참가 명단 통보로 오는 22일 광주에서 열리는 YLP(유스리더십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이하 U대회)에 따르면 UNOSDP 공동프로젝트인 YLP는 분쟁지역 또는 개발도상국 청소년을 스포츠 개발과 평화 전문가로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U대회 조직위와 UNOSDP는 YLP와 에픽스(EPICS) 포럼을 오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광주시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개최한다. YLP는 지난해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처음 열렸으며, 아시아지역 최초로 올해부터 U대회가 개최되는 2015년까지 매년 광주에서 열리게 된다. 올해 YLP에는 북한을 포함해 19개국 아시아 청소년 33명이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주요 프로그램은 리더십 강의, 스포츠·평화·장애인·교육 관련 이론 및 실기교육, 태권도·축구·수영·탁구·조정·복싱 등 스포츠 활동, 한복입기, 한국 음식 만들기, 다도, 도예, 옻칠 공예 등이다.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에는 국제경기연맹(IF)에서 협의된 종목별 전문 스포츠 코치들이 참여해 지도하게 된다.

또 이번 YLP 기간 동안 윌프리드 렘케 UN스포츠 특별보좌관, 테글라 롤로프 UN친선대사, 스테판 버그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부회장, 라이마 야누소네트 국제스포츠기자연맹 부회장,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등이 연사로 참석하는 에픽스 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에픽스 포럼은 U대회 주제(Environment, Peace, IT innovation, Culture, Sport Development)의 영문 이니셜을 딴 행사 명칭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